

영생하는 자격자는 반대생활로 나를 미워하고 죽여야

여러분들이 영원무궁토록 살려면 반대 생활을 일관함으로써 이긴자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되는 고로 반대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생활이란?

내가 일하기 싫으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맛있는 것이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이런 반대생활을 현실적으로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안 하면 반대생활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 생활을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마귀의 영이 죽게 되고 마귀의 영이 죽음으로써 이긴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대접을 받기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고로 이긴자 하나님이 되려면 누구든지 존경하고 공손히 대접하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건방지고 자존심이 있어 인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고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섬길 줄 모르는 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도통을 하려면 나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는 말씀이 불경에도 쓰여 있듯이 여러분들이 나라는 의식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항상 무아경지에 이른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아경지에 이른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경지인데, 죄가 없는 경지는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경지요, 이긴자 구세주가 되었다는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긴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었느냐 하면 이 사람은 나라는 의식을 완전히 짓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고로 누가 와서 별안간 아무 예고도 없이 주먹파쿠를 갈겨도 나라는 게 없으니까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는 게 없으면 완전히 무아경지에 이르러서 누가 때려도 그걸 망신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때린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맞으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정도라면 나라는 의식의 경지를 넘어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도 가고 영생도 얻을 수 있어

그러한 경지에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살 영생의 자격자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격양유록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불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나라는 의식이 없어져서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도 가고 영생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늘나라도 못가고 영생도 못 얻고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망의 신이 되는 귀신이 바로 나라는 의식인 고로 그 귀신이 있는 한, 꼭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아주 부자인 여자 한 분이 왔는데 이 사람이 어머마마 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아래 줄들이 여섯 명의 대통령이 이 사람의 재산을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들이나 절에 중들이나 다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찾아온 모양인데 여기 찾아와서도 안절부절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재산이 많으니까 죽여 버리고 그 재산을 뺏으려고 자기 뒤를 매일 누가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제단에 아무 소리 말고 열심히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자 마귀가 따라다녀요 사자 마귀가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땅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이 제단에 나오면 그 사자 마귀를 이 사람이 죽여 버리는 고로 그 사람은 안전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주가 구세주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고로 제 아무리



구세주 조희성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열심히 나오라는 건 사자 마귀가 따라다녀서 죽을 염려가 있는 고로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제단에 나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사람도 내 재산을 탐내서 여기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개는 개 생각을 하고 소는 소 생각을 한다."고 이 사람이 옛날부터 말했지만 그 사람은 말하자면 재산 마귀가 목에 걸려 있어서 언젠가는 그 재산 마귀 목줄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돈을 알면 제 명예 못 죽습니다. 돈을 몰라야 오래 살고 돈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돈을 알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제단은 도를 닦는 곳인 고로 제단에 계속 나오면 자연적으로 재수가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운세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고로 제단 나오서 은혜를 입으면 하시는 일이 잘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는 하나

여러분들은 사람이 신이라는 것도 알

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자 마귀가 하나님을 죽여서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람의 생명이 죽으니까 몸이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교들은 영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는 영육 분리설을 논하고 있는데 하나를 둘로 쪼개는 성품이 마귀의 성품인 고로 마귀 속성은 분열의 영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어떤 모로 봐도 사람의 육체가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육체가 있어야 피가 담겨지게 되고 피가 담겨져야 마음에 담겨지게 되고 마음에 담겨져야 마음에 의해서 모든 육체의 기관에 에너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면 힘이 나와 가지고 힘도 할 수 있고 무거운 것도 들 수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음과 육체는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둘이라고 하는 건 마귀 새끼가 하는 소리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인 고로 하나님을 둘로 쪼개고 둘을 넷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요."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생명과 몸이 하나'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하나님의 영인 고로 살아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상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바로 육체요, 육체가 영이요, 영이 피요, 피가 마음이요, 마음이 영인 고로 영 자체가 육체요, 영 자체가 피요, 영 자체가 마음인 고로 마음과 육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을 가지고 둘로 쪼개서 말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민수기서 16장 22절과 27장 16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피로써 육체가 이루어지고 피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니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인고로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피로 육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육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피가 자꾸 썩어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면 장님이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는 자는 귀머거리인 것이요 피가 담겨지게 되고 피가 담겨져야 마음에 담겨지게 되고 마음에 담겨져야 마음에 의해서 모든 육체의 기관에 에너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면 힘이 나와 가지고 힘도 할 수 있고 무거운 것도 들 수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음과 육체는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둘이라고 하는 건 마귀 새끼가 하는 소리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인 고로 하나님을 둘로 쪼개고 둘을 넷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요."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생명과 몸이 하나' 하는

그런고로 이 사람은 그런 연단을 받아 반대 생활의 명수가 된 고로 인내력을 가지

고 반대생활을 일관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반대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슝바귀를 먹었던 것입니다. 김치도 있는데 굳이 슝바귀를 먹었던 것은 내가 너무나 미웠던 고로 그랬던 것입니다. 나를 미워해야지 나를 사랑하면 피가 자꾸 썩어서 결국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미워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러니까 누가 나를 때려도 고소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죽여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옛 사람을 짓어겨서' 하는 찬송가가 있는 것입니다. 짓어킨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미우면 산에 잔디를 벗겨내고 나무뿌리를 캐내고 바위를 오함마로 때려서 부숴버리고 밭을 만드는 힘든 일을 했겠습니까? 해와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진해서 했던 것입니다. 잔디를 전부 벗겨내고 군데군데 있는 나무를 뽑는데 나무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고로 땅을 한참을 깊이 파서 나무를 전부 뽑아내야 했고 많은 돌을 파내야 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그렇게 산을 개간하고 나무를 불태우고 그 산에다가 밭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지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하던 것을 현대인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누가 봐도 격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이 사람은 내가 미우니까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는 게 왜 그렇게 미운지 그냥 만날 쥐어박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흉내낼까 봐 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벽을 들이박았던 것입니다. 벽을 들이박다가 뇌진탕이 돼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것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2001년 6월 11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욱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3)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지난호에 이어서)

역대상 6장

22절: 그(고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들은 암미나답(이스할)이요 그의 아들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들은 잇살이요 (*암미나답은 출애굽기 6장 23절에 아론의 장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된 표기라 할 수 있다. 역대상 6장 3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이스할임)
23절: 그의 아들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들은 에비아삼이요 그의 아들들은 잇살이요
24절: 그의 아들들은 다핫이요 그의 아들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들은 웃시아요 그의 아들들은 사울이라
25절: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새와 아히뫼이라
26절: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들은 나핫이요 (*여로함의 아들 '엘가나': 사무엘상 1장 1절에 그를 에브라임의 사람이라고 표현

한 것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며, 혈통적으로는 레위족속의 후손임)
27절: 그 아들은 엘라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사무엘이라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사무엘상 1장 19-20절 참조)
28절: 사무엘의 아들은 만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아이다.
38절: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고핫)의 아들이요 그(고핫)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진과 번개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을 죽일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던 중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어"라고 부르짖었습니다(민수기 16장 22절). 그때 이 말을 들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사람의 육체 속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그

《6장 40년의 광야생활》

(13)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와 불을 담은 항로를 든 아론과 염병에 걸린 백성들 제임스 티소(James Tissot)의 성경 삽화, 'The Fire of Atonement(속죄의 불), as in Numbers 16:41-50.'

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기 위해 염병이라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마음을 점령한 마귀는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돌을 들고 "당신들이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소."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텨비자, 두 사람은 성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성스런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들이 염병으로 순식간에 죽게 되었으니, 이들을 구하고자 하면 나 여호와와 불로 향로를 피워 그 향을 마시게 하라." 하고 구제 방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대제사장 아론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여호와와 불을 거기에 담고 향을 피우세요. 그리고 향로를 들고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로 가서, 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와 향기를 맡게 하여 죄를 속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으나, 염병은 이미 백성 가운데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로를 연신 흔들며 향내를 풍기게 하여 백성이 죄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 주며 염병이 물러갈 때까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과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에 순종하여 향로의 향을 코로 맡은 사람들은 염병이 물러나 살게 되었고, 끝까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웃으면서 바람을 등지고 섰던 일만사천칠백의 사람들은 염병에 죽었습니다.* 안셀라

1_ 민수기 16장 46절에 '염병은 여호와와 진노에 의한 재앙'이라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정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 기자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자 죄인이기에, 죄인의 입장에서 마귀식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오류를 종종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온전치 못한 기록을 온전하게 고쳐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성품 중의 하나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지 생명을 죽이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사망권세를 잡은 마귀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